

평 화 선 언

평균연령75세를 넘긴 피폭자의 뇌리에 63년전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8월 6일이 돌아왔습니다. 「물을 주세요」「살려 주세요」「어머니」——피폭자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지옥으로 사라진 목소리, 얼굴, 모습을 우리들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아픔을 다른 누구에게도 시키지 않기」 위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피폭자의 심신을 지금까지도 아프게 하는 원폭의 영향은 오랜 세월이 걸쳐 과소평가되고, 아직까지 피해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상처는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히로시마시에서는 2년에 걸쳐 원폭체험의 정신적 영향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비극과 고뇌속에서 탄생한 「핵무기는 폐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진리의 무게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작년 11월, 과학자와 핵문제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히로시마시가 마련한 핵공격 피해상정도 이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핵공격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핵 비확산조약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핵군축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모든 국가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핵정책 중추를 담당해온 지도자들조차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거듭 촉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들이 다수파라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과반수를 점하는 자치체조직인 「도시·자치체연합」이 평화시장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조약은 190개국, 비핵무기지대조약은 113개 국가·지역이 서명, 작년에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핵폐기 결의는 170개국, 지지하고 반대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뿐입니다. 금년 11월에는 인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수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미국의 새대통령이 탄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수파의 의사인 핵무기 폐기를 2020년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전세계 2368개 도시가 가맹한 평화시장회의에서는 금년 4월에 핵 비확산조약을 보완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 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취득·배치의 즉시 중지, 핵무기의 취득·사용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약의 2015년까지의 체결 등 의정서는 핵무기 폐기에 이르는 도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향해야할 방향과 도정이 분명해진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행동력입니다.

대인지뢰 및 클러스터탄 금지조약은 전세계의 시민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의 힘으로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유효한 대응이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도시단위로 협력하여 인류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 전세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세계 도시끼리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국헌법은 이러한 도시간 관계를 모델로 하여 세계를 생각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에는 그 헌법을 준수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의 채택을 위해 각국정부에 호소하는 등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검은비 강우지역」 및 해외의 피폭자도 포함, 그리고 원폭증 인정에 있어서도 고령화한 피폭자의 실태에 맞는 따뜻한 원호책의 충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G8 하원의장회의가 개최됩니다. 개최지 히로시마에서 「피폭자의 철학」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폭63주년 평화기념식전에 즈음하여 우리는 원폭희생자의 영전에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바치며, 나가사키시와 함께, 그리고 전세계 시민과 함께 핵무기 폐기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행동할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2008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秋葉忠利

번역 : 일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